가구인 듯 가구 아닌 가구 같은 가전

예술작품 변신한 냉장고 등 경계 허무는 가전 인기
삼성·LG 빌트인 가전 시장 공략
고가에도 매출 갈수록 늘어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는 보지 않을 때 명화를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춰 평상시 예술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주방가전업체 데이코와 협업해 선보인 가전·가구 결합한 제품들.

성능은 기본. 인테리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신경쓴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공〉

거실 인테리어 일부가 된 공기청정기, 예술 작품으로 변신한 냉장고에 액자 처럼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TV ….

가구와 가전의 경계를 허무는 가전제품들이 인기다.

특히 최근에는 어떤 환경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들어진 '가구같은 가전'이 인테리어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봄 이사철과 결혼 시즌을 맞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가전업계도 인공 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능을 갖춘 가전에 외국 가구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디자인을 강화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디자인 가전 열풍이 가장 강한 곳은 주방 부문으로, 삼성·LG 등은 가전과 가구의 영역을 결합한 '빌트인 가전'으로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고급 주방가전 브랜드 '데이코'와 협업을 통해 예술작품 같은 가전을 선보이며 고객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인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19'에서 '데이코 모더니스트존' 럭셔리 주방 프리미엄 가전으로 변신해 선보였다.

패밀리허브 냉장고, 의류 관리기, 세탁기·건조기, 공기청정기가 가구로 변신해 집 안 어느 곳에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LG도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선보이며 고객 발길을 붙들고 있다.

LG전자의 오브제(Objet)는 가전 위에 나무, 금속 등의 소재를 덧씌워 가구 같은 느낌을 주도록 만든 가전·가구 결합제품이다.

거실 가전도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고객 눈길을 붙들고 있다. TV의 경우 액자기능을 활용해 보지 않을 때 명화를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TV(삼성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나 '메탈'이나 '블랙' 대신, 테두리 뿐 아니라 뒷면까지 크림 화이트 컬러를 적용한 TV(대우전자 인테리어 TV '허그') 등이 선보이는가 하면, 인테리어 일부가 되도록 디자인을 강화한 공기청정기(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날개 없는 선풍기 등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인테리어' 가전들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가전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8월부터 9층 의류매장을 디지털가전 전문관으로 꾸며 고객 확보에 나선 상태다.

백화점 프리미엄 가전 매장에서 판매하는 빌트인 상품의 경우 4000만~5000만원이라는 고가임에도 매월 5건이상 구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이 꾸준하다는 게 백화점측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봄 이사철과 결혼시즌을 앞두고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프리미엄 가전 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0% 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활용방안 논의 본격화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토론회 개최

금호타이어가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공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면서 송정역 일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1월 미래에셋대우, 광주시 등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부지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전을 검토하면서 광 송정역 인근 광주공장 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활용 계획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산구는 토론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방안'(류영국 지오시티 대표이사), '선진 역세권 토지활용사례'(박태원 광운대 교수), '대규모시설의 이전 적지 활용사례와 사업성 확보방안'(이명범 광주대 교수) 등을 살펴보고 조강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공장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연계한 송정역세권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지역민,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1월 광주시 등과 협약을 맺고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 절차, 공장이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자금 조달방법,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광주 광산구도 지난해 1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의뢰,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여수 서남해안 국도 77호선 전 구간 연결한다

익산국토청

영광~여수를 잇는 서남해안 국도 77호선 전 구간이 연결된다.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신안군 '압해~화원' 구간과 여수시 화태~개도~백야' 2개 구간이 선정되면서 영광부터 여수에 이르는 국도 77호선 전남지역 전 구간 연결이 가능하게 됐다.

국도 77호선은 부산 중구에서 남해안, 서해안을 따라 경기 파주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국도 노선으로, 총연장이 1254㎞에 이른다. 전남권에서는 535㎞로 43%를 차지한다.

예전에는 낙후된 섬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게 주요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경관이 수려해 해안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해안가 도서 지역의 도로 건설을 위해 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 11개 해상교량을 완공한 상태로, 올해 말에는 여수 화양~적금, 영광~해제 구간을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안군 압해읍~화원면 구간과 여수 화태도~개도~백야도 2개 구간이 지난 1월 정부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된 만큼 영광~여수를 잇는 국도 77호선 전 구간 연결이 가능하게 됐다.

익산국토청은 예타 면제된 2개 사업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신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발주 방식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철흥 익산국토청장은 "전 구간이 연결되면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다양한 해양관광을 갖춘 신성장 관광벨트의 국제적인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9.23 (-11.43)	금리 (국고채 3년)	1.84 (0.00)
↓ 코스닥	747.95 (-0.12)	↑ 환율 (USD)	1125.50 (+0.60)

쏘울 부스터 EV 출시

두달만에 3600대 계약판매
市 보조금 1대당 1500만원

쏘울 부스터 전기차(EV)가 출시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차량으로, 지난 1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계약 대수가 3600여대로 올 해 예상 판매대수(2000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기존 쏘울 EV보다 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난 64㎾h 고용량·고전압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한 번 충전으로 386㎞를 주행할 수 있어 기아차 전기차 중 최장 주행거리를 갖췄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출발 시각과 목표 충전량, 저렴한 요금 시간대 등을 고려한 예약충전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해둔 목표 충전량에 도달하면 충전을 종료하는 '예약 충전' 기능도 적용됐다.

실내에는 차량 외부에서도 충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등'과 다이얼 타입 전자식 변속레버 등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느낄 수 있다.

쏘울 부스터 EV는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판매 가격은 프레스티지 4630만원, 노블레스 483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광주시의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